



집중기획

중국인이 몰려온다

한국문화의 진수를 전달하는 교류 소재 개발해야 _ 이영일

한국을 찾는 중국인, 이런 점에 주목한다 _ 홍영섭

방한 중국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_ 김철원

한국문화,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_ 애서광 · 이명희 · 장영지



한국문화의 진수를 전달하는 교류 소재 개발해야

한·중 교류 10년간의 문화교류의 흐름과 변화

글_이영일 현 한중문화협회 회장, 전 국회문교공보위원장

한·중 수교의 참뜻

금년으로 한·중 양국은 1992년 양국간에 정식으로 국교가 열린 지 10년을 맞게 된다. 한·중 양국간의 기나긴 협력의 역사에 비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은 지극히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한·중 수교는 그것을 계기로 양국간에 형성돼 온 역사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동부해안지역과 만주일대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적·자연적 활동무대였다. 바꾸어 말하면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준 자연적 교역권이였다. 그러나 동서냉전과 국토분단으로 우리는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연적 교역권을 상실한 채 살아야 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중국·일본이라는 동북아시아 3국 관계에서 한국과의 관계단절 때문에 정치·경제 분야의 활동에서 적잖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양국간에 국교가 열림으로써 이제 많은 제약은 해소되고 21세기를 한·중·일 3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의 세기로 발전시킬 새로운 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여기에 한·중 수교의 참뜻이 있을 것이다.

한·중 수교와 함께 그간 억제되었던 양국간의 교류

와 협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우선 한·중간에는 수교와 함께 경제적 거래관계가 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전개된 결과 2002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 역시 중국의 제4위 교역국이 되었다. 경제교류, 협력이 촉진됨에 따라 이에 병행해서 양국간에는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인적 교류가 늘면 늘수록 서로간에 이해와 공감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교류의 축적 위에서 양국간의 문화는 필연적으로 교류의 기류를 타게 된다. 한·중 양국간에는 서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문화의 뿌리가 많은 부분에서 공통되고 있다. 인정, 애정, 동정, 가치감정 등에서 적잖은 공감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통성이 사회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서 이질적으로 보였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곁에 드러난 차이점은 양국 국민들간의 의식의 표면이었을 뿐 의식의 깊은 곳, 즉 집단무의식 속에는 문화적 동근의식(同根意識)이 깊이 터를 잡고 있었다. 중국 CCTV가 한국 안방극장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를 소개하자 전 중국에서 인기가 폭발, 재방하는 사태가 나온 것은 바로 이러한 공감대의 존재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 문화교류는 한·중 수교 후 중국정부



중국 CCTV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사람이 뭐길래》.

가 실시하는 개혁개방정책의 변화와 대북한 정책의 추이,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정부의 태도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하에서 중국개혁개방정책의 변화를 개관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태도 그리고 이 속에서 이루어진 한·중 문화교류의 양상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문화교류

개방이론의 발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다. 이 당시 중국의 목표는 문화보다는 빈곤탈피를 위한 국가현대화에 중점을 두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 지배를 온존시키면서도 경제면에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혁개방의 초기단계였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독재정치를 추구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적 자본주의를 모방하려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중국 지도층간에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이 이룩한 경제건설방식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이 당시 중국지도층으로 당시 호요방(胡耀邦) 당 총서기와 조자양(趙紫陽) 총리는 그리스와 유고의 공산당 기관지와 행한 각각의 회견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한국의 발전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경제개발정책을 철저히 연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간에는 비록 국교는 없었지만 소규모의 경제교류가 조금씩 이루어졌고 이에 수반하는 인사내왕도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은 1986년의 서울아시안게임에 최대선수단을 파견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북한이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표방한 이른바 중국방식의 정경분리주의(政經分離主義) 정책을 한국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초기 정경분리정책에서는 문화를 정치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중간의 문화교류는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이 결과 한·중간의 문화교류 문제는 수교 이후의 과제가 되었고 수교 이전에는 문화교류보다는 경제교류와 이를 실천하는 인적 교류가 부분적으로 행해졌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다. 개혁개방을 통한 외자유치로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대외문호를 적극 개방하는 한편 외국인들에게 시장접근에 용이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현 시점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명목상으로는 중국특색적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사회의 실질은 그들의 표현대로 “칸치라이서후이주이 치스찌번주이(看起來社會主義 其實資本主義)”, 즉 ‘사회주의로 보이지만 실제로

* 李弘均, 『鄧小平시대의 한중관계』, 國際政治論叢 제30집(1990), p. 64 참조.



우리가 문화교류라고 부를 만한 대규모 사업들은
한국의 안방극장의 드라마가 중국 CCTV에서 방영되어
중국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으면서부터 촉발되었다.
이른바 한류(韓流)도 한국 TV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자본주의' 라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장쩌민 중국공산당 주석은 그의 이른바 3개 대표론을 강론식으로 발표했는데 내용인즉 첫째 중국공산당은 국가선진화를 대표한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선진문화를 대표한다, 셋째 중국공산당은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진문화를 대표한다는 것은 시장개방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문화유입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은 공산당이 무산계급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당이 아니라 유산계급까지를 포용하는 당이 될 것이며 자산계급까지를 공산당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이론의 현 단계는 한·중간에 수교가 이루어진 현실에서 볼 때 문화교류의 장벽이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큰 원칙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오늘의 한·중간에는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데 중국 측의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중 교류의 발전

한·중간의 국교정상화는 양국간의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중 양국간에는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al proximity)과 문화적 친밀성(cultural affinity)에 힘입어 수교와 동시에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개시되었다. 우선 한국 측에서는 중국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인들이 줄을 이어 중국을 찾았고 동시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중국의 명승지를 찾으면서부터 문화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을 여행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으나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이 상당기간 지역적으로나 신분상으로 제한되었다. 한국이 중국인들의 자유로운 여행대상지로 분류된 것은 수교 6년이 지난 1998년 6월부터였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는 1994년의 14만 명 수준에서 1998년에 21만 명, 2000년에 44만 명, 2001년에 70만 명 선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관광업계는 오는 2003년에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여행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앞으로 3~4년 후에는 서울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여기저기로 몰려다니는 중국인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만남과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한·중간에는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경제 분야의 협력과 협작이 대폭 증가했다.

1992년 270여 건에 약 2억 달러 정도의 합작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에는 4,930건에 46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경협관계를 뒷받침할 학술차원의 연구와 교류도 활발해지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중 수교 초기에는 역사학자(歷史學者)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대륙을 무대로 펼쳐진 독립운동 사료 발굴 차원에서 중국학계와 교류를 전개했다. 아울러 상해(上海)와 중경(重慶)에 있는 한국임시정부청사를 매입,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병행하여 외교통상부는 국제교류재단(Korea Fundation)을 내세워 중국인민 외교학회와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한·중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양국간의 그때 그때의 현안 문제를 각 분야의 유관 전문가들로 하여금 격의 없이 토론허게 하는 사업을 제도화시켰다.

한편 중국 측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중국의 각 도시들과 한국의 도시들간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했고 아울러 양국의 대학들간에도 자매결연 사업이 활발해졌다. 이 자매결연사업은 한·중 양국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갖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펼쳐지게 되었다.

한·중 수교 이전에는 한·중관계를 다루는 민간단체(NGO)는 한·중문화협회뿐이었다. 그러나 수교를 계기로 한·중우호협회가 양국간의 합의로 설립되었고 그 밖에 10여 개의 자발적인 민간단체들이 한·중 교류를 명분으로 설립되어 활동중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교류라고 부를 만한 대규모 사업들은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1세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안방극장의 드라마(soap opera)가 중국 CCTV에서 방영되어 중국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으면서부터 촉발되었다. 여기에 힘입어 한국오락물들이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중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널리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한류(韓流)도 한국 TV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아리랑TV가 위성 채널을 통해 한국드라마를 매일 밤 중국에 소개하고 중국의 무협(武俠)영화가 한국연예가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부터 한·중 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요즘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는 이른바 한류가 크게 인기를 끄는 가운데 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류는 한국연예인들이 주역이라는 점에서 한류라고 불리지만 문화의 콘텐츠가 '한국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 한류가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서양식의 음악과 율동과 선율을, 서양인이 아닌 자기들과 비슷한 문화권 사람들인 한국연예인들이 서양인들 못지 않게 좋은 마스크로 잘 소화해 내고 있는 데 감명을 받은 것 같다. 또 이 지역

China



일시적인 유행현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가 아니라
한국문화의 진수를 전달하는 교류 소재를 적극 개발하고
아울러 중국문화의 저력을 바로 평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국 문화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 콘텐츠의 공동개발도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젊은이들의 정서에 서양인들보다 더 잘 파고든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류현상은 문화라기보다는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적 전환기에 나타난 일종의 유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중국 측에서도 한류 열풍과 보조를 같이해서 금년부터는 중국의 록 가수 최건(崔健) 등을 한국에 파견하여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최건은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 제일의 록 가수이며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민주화를 외치는 대학생들 앞에서 록을 열창한 것으로도 명성을 올렸다. 앞으로 연예계에서의 한·중간의 교류는 양국을 잘 연계하는 내실 있는 프로모션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아울러 중국의 조선족들이 활발하게 펼치는 가무(歌舞)활동도 한·중 교류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문화교류의 제약 요인과 앞으로의 전망

한·중 문화교류의 제약 요인

한·중 수교 10년 동안 한·중관계는 괄목할 만큼 발전하였다. 중국이 수교하고 있는 외국과 중국과의 친소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론에서 볼 때 한·중관계는 '협력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하였다.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보다는 한 등급 낮지만 양국 협력의 실질면에서는 북한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간의 교류와 협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제약이 따르고 있다. 우선 반공이데올로기를 적극 반영하거나 북한에 적대되는 행위나 표현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견제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중국은 북한을 전통적 우호관계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을 비하(卑下)하거나 중국의 현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공연물이나 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 1999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당시에는 한·중관계는 협력적 동반자관계였으나 2000년 10월 주룽지 중국총리의 방한시에는 한·중관계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표현되었다. 협력의 범위가 경제나 비정치 분야가 아닌 정치·군사·안보까지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여부를 허가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고 있다. 개혁과 개방이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도 공연물이나 출판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허가제를 실시한다. 이것은 중국이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예컨대 티베트의 독립문제를 긍정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철저히 억제한다. 더욱이 달라이 라마를 거부하는 중국의 입장은 의외로 단호하다.

끝으로, 중국인들의 현재의 생활수준에서 보면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이 넉넉할 수 없다. 문화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넘는 인구가 광주(廣州), 상해 등 동부지방에 약 4,00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지역에 비해 중국의 서부나 중부지방의 문화구매력은 현저히 낮다. 따라서 문화시장의 협소함이 개선될 때까지는 문화산업의 중국진출에 너무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것이 중국 측의 제약 요인이라면 우리 한국에도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제일 큰 제약이 언어장벽이다. 우리나라의 어문정책에서 한자를 배운 세대보다는 배우지 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중간의 언어장벽은 중·일(中日)간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도로표지나 간판이 완전히 한글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여행하기보다 한국 여행하기가 훨씬 힘들고 안내원 없이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열기가 높아가고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만원을 이루고 대학의 중국어학과 지원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중간의 언어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용한자를 초등학교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해방의 감격 때문에 제정된 한글 전용법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

오늘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중국의 발전방향이 되었다. 또 중국의 WTO 가입이 실현된 2002년부터는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만이 중국공산당이 인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냉전시대의 낡은 국익관념에 사로잡히거나 이념적 명분에 집착할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고 중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교육시키지 않는 한 미래를 향한 창의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대륙에서 크게 일고 있는 미국유학 붐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지금 중국의 제3세대 지도자들이 개혁개방을 정착시켰다면 2003년부터 시작될 제4세대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잔재를 청산하면서 국가선진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중간에는 거의 제약 없는 문화교류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것은 일시적인 유행현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가 아니라 한국문화의 진수를 전달하는 교류 소재를 적극 개발하고 아울러 중국문화의 저력을 바로 평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국 문화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 콘텐츠의 공동개발도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일부 한국인들 가운데는 중국을 알잡아 보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시장은 선택적인 데 비하여 한국에 있어서 중국시장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문화적으로 더 깊이 있는 중국진출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